

THE TRUE STORY



한국어 버전



Tommy Vig

진실은 명예 훼손에 대한 완벽한 방어이다.

본 책에서는 진실이 아닌 것을 읽을 수가 없다.

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쓰여진 사실들은 신빙성을 잃게 하려는 참 나쁜 사람들에 대한 사실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법이기도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폭력과 살인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이 짧은 책을 왜 쓰고 왜 출판해서 왜 위협에 처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훌륭한 질문이다.

설명하자면 나는 작곡가이자 심각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듣기 위해서 돈도 안 내는 음악의 말이다.

(예: <https://www.youtube.com/watch?v=0qYx6O94yZ4>)

자, 다시 물을 수 있다: 그런 심각한 음악을 작곡하는데 뭐가 좋은가? 돈도 못 받고 팝스타처럼 존경도 못 받을텐데...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나도 모르는데 하나만 안다: 우리 모두 다른 개인으로서 태어난 것이다. 홍콩의 젊은 사람들은 왜 반란을 일으키고 있을까? 자유로운 발언, 인권 없는 억압적인 독재 정부의 중국이 움직여서 100%의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도시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게 되거나 죽이게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왜 일으킬까?

우리 헝가리인들도 1956년에 봉기하였다. 공산 국가인 러시아가 우리 혁명을 결국에 파괴할거라고 다 알았는데도 왜 폭동이 발생했을까?

우리들 몇명에게는 자유와 진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빌어먹을 어뢰들!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하나뿐의 설명이다. 어떤 신념을 위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거나?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바보일까?

아마도.

그런데도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싶다.

Tommy Vig

독자 여러분,

나는 작가가 아니라

음악가(<https://www.youtube.com/watch?v=0qYx6O94yZ4>) 라서 존
그리샴이 쓴 작품 같은 것을 읽고 싶으면 바로 여기 그만두면 된다. 이 책은
그런 것은 아니다.

본 책은 단지 미아 김 (<http://www.thekimsisters.com/>) 그리고 토미 비그
(https://en.wikipedia.org/wiki/Tommy_Vig), 음악 사업에서 성공을 이룬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사실을 담은 참고다. 우리가 경험한 좋은 것과 겪은 나쁜
것 여러 가지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이다호 대법원이 내릴 피고인 사라 게르데스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Deloge v. Cortez* 131 Idaho 201 (1998)의 통제권한에
따르면, 우리는 이기겠다.

관심, 이해와 참을성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ommy Vig 올림

1

나와 미아 같은 음악가들에게 60년대 라스베이거스가 살기에 기막히게 좋은 곳이었다. 물론 미아는 김시스터즈의 멤버로서 큰 스타였지만 나 역시 동시에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먼저 스타더스트에서 후안 가르시아 에스퀴벨과 함께 활동했다 (결혼한 후안은 수와 샷서방을 보았는데...) 그후, Nat Brandwynne라는 지휘자하에서 새로운 시저스 팰리스의 드럼 연주자가 되었다. 토니 베넷, 우디 앨런, 토니 커티스, 주디 갈랜드, 밀턴 벌리, 그리고 또 수많은 스타와 연주하고 '달콤한 자비'라는 브로드웨이 쇼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1964년부터 미아하고 나는 우리 깊은 연애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56년이 지났어도 이 불 같은 사랑과 전념은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미아를 하루 24시간 동안 사랑하고 있다. 나는 역시 운이 좋은 남자다!

나는 드럼을 치는 것을 오늘까지도 좋아하지만 항상 엄청 좋아했으며 타악기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미리 예측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친한 친구였던 고 로저 햄턴은 뒤네스 호텔의 훌륭한 타악기 연주자였다. 어느 날, 큰 전시실에서 주요 파리 캉캉의 미국 버전을 공연으로 하고 있었다. 로저는 차고의 문을 수리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일하러 못 가게 되었다. 나는 그때 스타더스트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 로저의 상황을 들으니 저녁 8시에 내가 뒤네스에서 무료로 대신해주기로 했다. 그날 스타더스트 라운지에서 나의 첫 공연이 밤 1시40분부터였기 때문이다.

그가 원래 연주한 어려운 부분에 팀파니, 실로폰이 있었고 다른 타악기를 반주를 해 줬고 음악은 위대한 작곡가/편곡자/지휘자 빌 레디가 쓴 것이었다. 이렇게 로저의 역을 한번 대신 연주하고 나서 내가 타악기 연주자라는 말이 퍼졌다.

바로 이거였다.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은 많지만 좋은 타악기 연주자가 그리 많지 않다. 1970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이사갈 때에는 할리우드의 음악인들을

나를 이미 타악기 연주자로서 환영했으며 나는 할리우드의 영화스튜디오들에서 가장 바쁜 연주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미아와 나는 칼라바사스에서 완전 새롭고 환상적인 집을 샀고 우리의 끊임없는 신희여행 같은 삶을 계속했다. 1972년에 우리 아들, 로저가 태어났다.

자, 수 (김숙자)는 유명한 김시스터즈, 즉, 수, 애자와 미아의 3명 중에서도 하나였다.

그 여자는 미아에게서 1956년과 1976년 사이에 약 400만 달러를 훔쳐버렸는데 지금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성공을 못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남편 존 보니파지오는 마피아가깡패들이 로스앤젤레스라스베이거스를 다스렸을 때 카지노 사장들의 집행자였다. 불쌍한 애자는 죽었다. 미아는 유럽, 미국과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도 공연을 하고 있고 청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아의 최근 공연들을 유튜브에서 구경할 수 있다.

(예: <https://www.youtube.com/watch?v=NfgaMnvwAxo>)

2

다음으로 사라 게르데스.

제발!

지금 아이다호의 쿠르덜레느에서 살고 있는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여자 사업가에 대한 말이다. 출신이 좋은 곳임은 분명하고...

그 여자는 이제 일종의 해결사로 활동하는데 부자들과 돈이 많은 회사들 사이에서 돈 문제를 처리해 주는 중개인이다. 이것은 실제로 그의 직업이다. 중개인.

그렇지만 이 여자는 아울러 소설가로서도 가장하다. 크리스 힐리와 다른 고재인 대필 작가가 쓴 "자기"의 책을 스스로 출판한다. 게르데스는 사실

글쓰기에 재능이 없지만 야망은 있다. 적법한 출판사는 그녀의 책에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그녀는 자기의 책을 직접 출판하고 예를 들어 Randy Lee, Annon111, Brandi L,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Amazon.com 웹사이트에서 자기의 책에 대한 칭찬하는 논평을 올린다.

그녀의 가장 큰 거짓 책 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되었는데 김숙자와 그의 남편 존 보니파지오와 25000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맺어 김숙자와 김시스터즈가 등장하는 복수의 책을 출판하려고 했다. 돈을 통해서 날조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에 대하여... 게르데스는 역사를 다시 발명하고 스폰서였던 김숙자의 불쌍하고 불안해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쓰려고 했다.

이 100%로 거짓인 전기는 다음 제목이 지어진 역사책과만 비교할 수 있다: "나치들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김숙자는 한국의 매체에게 입양한 자매 미아가 김숙자의 어머니 이난영의 친딸인 척했다고 거짓을 했다. 미아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 검찰은 심문을 받기 위해 김숙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명예 훼손이 심각한 범죄거든.

하지만 수는 아마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목포 관청에 1987년의 위조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의 내용에서는 미아가 김시스터즈라는 이름을 앞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위조죄는 참 분명하다: 미아의 서명은 관련없는 한 페이지에서만 보이는데 가짜의 계약서에 금속제 잠금장치로 붙인 것에 불과하다.

재판에서는 게르데스도 김숙자도 1987년의 계약서가 위조 서류였다고 인정했다.

3

우리와 모르는 사이에 있는 사라 게르데스는 그의 위조의 책에서 인물들을 훼손하고 김시스터즈와 관계가 있었던 많은 좋은 사람들의 명성을 더럽혔다. 그들은 이미 사망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실제성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에서 내 아내와 나의 평판에도 먹칠하고 우리의 명예도 공격했다. 우리는 이제 80살이 되었는데도 매우 활기차고 죽기 전에 오명을 꼭 씻고 싶다.

이것을 평화적으로 달성해 봤다. 사라 게르데스에게 책에서 우리에게 대한 거짓을 쓰지 말라고 부탁해 봤으나 그 여자는 거절했다. 이유는?

한 소송 때, 출판인 게르데스는 재백의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미아와 내가 깡패인 보니파지오의 '큰 남자'에 의해 죽여버렸다면 그의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될 것이다. (게르데스는 존 보니파지오의 지도하에서 일하는 진짜의 암살자들을 이야기에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의 "수집가"라고 불렀다.) 베스트 셀러가 되면 정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

4

이 복수의 책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미아와 나는 작가에게 명예 훼손에 대해 소송을 걸어 봤으나 지방법원의 재판에 저버렸다. 판사 존 미첼이 그 지방의 쿠르덜레느 명사 사라 게르데스를 잘 아는 상황이다: 그녀의 남편과 함께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

판사 미첼은 아이다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가장 실력없는 판사들 중의 하나다. 변호인과 검찰관들은 가장 자격이 없는 판사라고 생각하는데다가 이 판사가 입장을 바꾼 기록도 가장 많다고 한다.

우리의 사건, 판사 미첼은 사라 게르데스에게 도와주는 일들이 다음과 같다:

- 배심원단의 책임을 없애버렸으므로 서로 관계없고 독립한 12명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게 되었다. 대신, 판사는 게르데스가 배심재판에 나갈 필요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분명하게 편견이 있는 식으로 사실들을 예정하였지만 이렇게 우리 헌법의 제7조, 또한 아이다호의 7장을 둘다 무시해 버렸다. "재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만 한다."

또, 판사는:

- 이 민사 사건의 경우에, 본인의 미리 결정되고 개인적인 선도에 따라 잘못 해석해서 기록된 사실들도 왜곡하였다.
- 변호사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행동했다.
- 오래전에 수립된 아이다호 법률을 제멋대로 부당하게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에 따르지 않았다. 언급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IRCP 36: 입장 요청
 2. IRCP 56: 약식 판결 요청,
 3. IRCP 15: 고소권,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다호 법률을 무시했다: *Deloge v. Cortez* 131 Idaho 201 (1998),
- 피고인에 반대하는 사실들을 왜곡시켰는데 이런 행동은 재판 사기죄라고 한다, 그리고
- 미첼 판사는 대단히 부당한 식으로 게르데스의 이야기에서 명예훼손을 일으키게 인용했으므로 출판물에서 나온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들에 작가도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더해 봤다. 이들은 게르데스가 출판할 말과 반대였다.

5

예를 들어서, 게르데스는 1987년에서 조작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285쪽에서 미아가 1993년에 수에게서 돈을 빼앗았다고 틀리게 암시했다.

또, 게르데스는 다른 사전에 계획된 거짓을 썼다. 이에 따라서, 본인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수가 미아에게 1993년에 52500달러를 지불했다고 썼으며 미아가 그 돈을 받자마자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고 긴 몇년간의 가족관계, 우정과 함께 한 노력을 다 잊었다는 최후의 거짓을 전세계에게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김시스터즈의 미아는 인간의 품위가

부족하고 던적스러운 여자이며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버리고 말았다.

소송사건 때, 게르데스는 285쪽에서 쓰인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조작임을 여러 번 인정하였다.

책이 재출판에 나가기 전에, 게르데스는 결국 그 부정한 이야기를 삭제하였는데 미아의 명성이 훼손당한 것에 대하여 독자들에게나 미아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미아가 그 돈을 받자마자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고 긴 몇년간의 가족관계, 우정과 함께 한 노력을 다 잊었다는 이 구체적인 거짓말 자체는 아이다호에서 명예 훼손으로 간주된다.

사실, 1993년과 1997년 사이, 그리고 언제라도 청구서, 청산협정서, 미아에게 지불한 52500불도 아예 없었다. 제로.

김시스터즈에 대한 책을 위하여, 게르데스는 미아와 인터뷰를 하기를 거절했다. 미아와 김숙자 밖에 또 살아 있는 김시스터즈가 없는데!

아울러, 게르데스는 나에 대한 거짓과 관련하여 나의 말을 들어줘보지도 않았다.

미국에서는 전통에 의하면, 그리고 기자들의 윤리에 의하면, 출판물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면 공격받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게 해주기가 필수다. 공격을 당한 사람이 무고를 부인할 기회를 받기도 포함이다.

제1조는 거짓을 출판물에서 나타내서 무고한 사람들의 진실성과 명성을 손상시키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바로 그 상황이다. 가짜의 작가 게르데스는 미아나 내가 당한 명예 훼손을 일으키는 주장을 한번도 부인해주지 않았다.

6

나는 1967년부터 미아의 남편이고 내가 김시스터즈를 위해 가장 성공적인 음악을 편곡했고 이 여자와 주변 사람들의 실체로운 생활을 다 목격했다. 사라 게르데스는 책을 잘 쓰기 위해서 75명과 인터뷰를 했고 많은 인쇄된 자료를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책의 이야기를 썼을 때 아무런 원천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출처에 대한 광적인 말 때문에 악의적인 허언증 환자 같다.

게르데스는 우리를 모르는 사이이고 우리와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미아와 나에 대한 비판적인 거짓 50가지 이상 쓰는데다가 미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거짓의 책의 표지에 미아의 사진을 붙였다.

7

사라 게르데스에게 25000달러를 줘서 미아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 나오는 것을 보니 수의 동기가 간단하다. 한 사람에게서 400만 달러를 훔치면 그 사람에 대해 느끼는 미움이 얼마나 깊은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책의 한 흥미로운 일부는 김숙자 (수)의 어머니, 이난영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다. 수가 게르데스에게 어머니의 자살에 대해 드러내라고 부탁했으니 게르데스는 책의 원판에서 첫 문장에 담겨서 그렇게 해줬다. 수의 이 놀라운 비밀 폭로는 충격적이었다. 목포 사람들은 이 사실이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난영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보컬리스트들 중의 한 명이자 50년대에 김시스터즈를 시작하고 교육시킨 여자였다.

1965년 초에, 한 저녁에 수가 통화했을 때 나이가 훨씬 더 적은 남자와 관계를 끊지 않다면 김시스터즈가 버는 돈에서 한국에 더 이상 보내지 않을거라고 어머니를 협박했다. 결과적으로, 그 남자가 이난영과 헤어져서 떠났고 이난영은 낙담하게 되었고 결국 자살을 했다.

수는 자기가 해 버린 일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지도 않았다. 한국 쇼비즈니스에서 이난영과 사이가 좋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었다.

게르데스는 수 어머니의 자살에 대해 책의 첫 문장에서 알린다. 그런데도! 스폰서인 수를 보호할 수 있게, 이야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난영이 사망한 날도 틀리게 쓴다. 사실, 1965년에 일어난 비극이나 책에서는 1964년이 쓰여 있다.

실체로운 일은 게르데스가 쓴 명예 훼손 책의 이야기에 한번도 간섭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아는 훌륭한 인격이다. 나는 잘 안다. 거의 55년 동안 끊임없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와 애자가 서로 싸웠을 때에도 미아는 김시스터즈를 단결하게 하였다. 모두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1959년부터 1973년까지 수가 불성실하게 미아를 김시스터즈에서 몰아내려고 했다. 일주일의 수입은 \$10.000 정도였어도, 미아는 김시스터즈의 멤버로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언젠가 급여도 못 받았다. 돈관리를 수가 했으며 수는 셋이 버는 돈에서 원래 미아가 받아야 할 세번째 일부가 회계사 다니엘 렘바크에 의해 저축된다고 했다.

이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1973년까지 배반자 김숙자는 미아에게서 200만 달러 넘는 돈을 훔쳤다는 의미다.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9

김시스터즈는 스타더스트와 맺은 계약이 1973년에 끝났는데 다른 호텔에서 공연 제안을 받지 않았다. 김시스터즈의 위대한 매니저 톰 볼이 죽었다. 아름다운 쇼비즈니스 이야기가 끝난 모양이었다.

내가 내 친구, 그때 힐톤의 오락 부장이었던 데이브 빅토르손에게 연락했다. 나를 봐서 반가웠고 김시스터즈에도 관심이 있었다. 나를 통해서 김시스터즈가 제안을 받았는데 힐톤에서 3년 동안, 일년에 6개월 공연하면 일주일의 급여가 \$20,000로 나오는 제안이었다.

거래에 대해 합의를 보았고 나서 내가 수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걸었다. 이것은 이 여자들이 받은 제일 좋은 제안일 뿐만 아니라 김시스터즈 자체도 구할 수 있는 거래였다.

하지만 수는 행복하지 않았다. 수는 원래 자기의 폭력배 남편, 존 비니파지오가 매니저가 되는 것을 원했으며 이 제안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매니저나 중개상이 없고 돈은 직접적으로 가수들이 받는 거래였다.

나는 수에게 계약서를 구해 줬는데 그에 대한 돈을 원하지 않다고 말해줬다. 데이브 빅토르손은 뜻밖에 며칠 만에 갑자기 죽었다!

수가 이에 대한 소식을 듣자 남편과 또 다른 폭력배 로키 센네스를 출연 계약 담당자 아트 앵글러에게 보냈다. 그의 딸인 낸시가 빅토르손의 비서로 일했기 때문이다. 깡패 스타일로 같이 계약서를 변경해서 다시 쓰니 로키, 보니파지오와 앵글러도 일정 비율을 갖게 되었다.

수는 나에게 시끄러운 소리로 이렇게 전화했다: "계약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하고 끊었다. 미아를 불충실하게 밴드에서 몰어내고 다른 언니 제인으로 대체했다.

수와 존은 그 일주일 에 받는 \$20,000의 대부분을 자기가 갖고 싶어한 계기였다. 미아(와 내)가 없다면 훨씬 더 쉽게.

10

존 보니파지오는 김시스터즈가 마지막으로 공연했을 때 스타더스트 라운지에서 나를 보러 왔다. 뉴욕의 강패 말투로 이렇게 말을 걸었다: "너희의 아들이 어느 유아원에 다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우리 아들 로저는 그때 1살이었다.

정말 좋지?

사실상, 1959년부터 1973년까지 수가 미아에게서 총 4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횡령했다. 오늘의 가치로 치면 1천만 달러 정도를 의미한다.

존 보니파지오는 우리를 죽인다고 여러 번 협박하였다.

아마 아직까지도 그것을 원한다. 하지만 다행히, 보니파지오도 걱정을 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FBI는 그 남자가 하는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그의 우리에게 대한 협박도 부다페스트, 서울과 워싱턴 디시에서도 기록한다. (존의 사진, 그리고 그의 폭력배 조직 안의 자리도 라스베이거스의 FBI 사무소에서 문서로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다.) (내가 한 번 아들에 대한 협박을 받아서 때 직접 사무소에 가서 신고했을 때 FBI 요원들이 나에게 사진도 포함해서 참 폭넓은 기록물을 보여줬다. 그의 아버지 토니도 뉴욕에서 이름난 범죄자였다...)

11

애자의 남편은 나의 친구 및 동료 음악가 프랭크 파스토르였다. 잘생겼고 친절한 남자이자 좋은 드럼 연주자였다.

수는 애자와 사이가 하도 안 좋아서 존을 보내고 그 남편을 심하게 마구치게 하였으니까 프랭크는 라스베이거스까지 도망가고 나중에 볼티모어에서 자살했다.

프랭크 파스토르도 볼티모어의 중요한 가족의 출신이었다. 나에게 항상 자랑스럽게 "우리가 볼티모어의 넘버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밤에, 울보같이 내 집을 찾아와 볼티모어에 있는 형제에게 전화를 했다: "존 보니파지오의 살해를 원해"

그가 사용한 표현을 내가 평생 그때 딱 한번만 들은 적이 있었다.

형은 프랭크에게 물었다: "전화를 어디에서 하냐?"

프랭크: "토미의 집"

형: "토미가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있냐?"

프랭크: "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런데 토미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12

애자는 언니 수 때문에 얼마나 압박당했는지 정서적인 공포로 유발된 암에 걸리고 1987년에 돌아가셨다. 게르데스는 그 책의 첫 문장에서 수의 어머니 이난영이 자살했다고 밝혔다. 수가 이것을 책에서 나오게 출판했으니까 미아는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난영의 자살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김숙자의 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그의 사정, 즉 자기 딸이 협박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수치스러운 비밀이다. 외부인들에게 알려진 가짜 커버스토리에 의하면 이난영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한국의 쇼비즈니스 사회, 특히 이난영의 동시대인들이 잘 아는 바이지만 한국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밀스럽고 사생활에 대해 잘 알리지 않은 편이다.

13

김시스터즈는 미국에서 큰 스타들이 되었다.

이 삼중주는 성적 매력이 뛰어났고 목소리 재능이 좋았고 음악 작품들이 신났으며 20가지 이상의 악기를 칠 수 있었고 무대에서의 침착성이 멋졌고 유머감각도 훌륭했다. 김시스터즈와 비슷한 것이 없었다.

애자는 열광하고 섹시하며 미아는 아름답고 친절하고 수는 ... 수는 여러 악기를 되게 잘 쳤고 리더십이 있었지만 가수로서 약한 편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질투가 많았다. 예를 들면, 한 친오빠의 아내가 메르세데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러움 때문에 정신이 돌았고 그 여자에게 소리치고 나서 다음 날에 김시스터즈의 돈으로 자기에게도 메르세데스를 구입했다.

14

미아와 나는 스타더스트 호텔라운지의 회전 무대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음악가와 연기자들 가족 출신이었다. 우리 둘다 어려서부터 미국의 재즈와 팝의 세계에서 전문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이 상당히 비슷한 시작은 차이점이 하나만 있었다. 미아는 한국의 서울, 나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었다.

이 두 나라는 공동점이 참 많다!

한국 사람들과 헝가리 사람들은 자유, 그리고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음악을 좋아한다.

오늘날, 2019년에 한국과 헝가리 간의 외교관계 30주년을 기념한다.

물론, 미아도 나도 애플 파이만큼 미국인이지만 반세기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답해준다: 서로를 이해 못하니까!

15

사실, 이해는 잘 하지.

지금은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다. 재미있는 도시!

정기권이 있어서 헝가리 국립 오페라에 다니고 MAV 교향악단의 공연도 보러 가고 오페레타도 자주 듣고 동시대의 실내악 연주회도 즐겨 다닌다. 바르토크, 코다이, 리게티, 펜데레츠키, 루토스라브스키의 음악작품을 음미한다.

우리는 또한 축구도 즐겨 보는데 바르셀로나의 팀을 제일 좋아한다.

미아는 일주일에 세번씩 테니스를 친다. 나도 치곤 했지만 너무 높이 치는 편이라 한때 예의 바르게, 동시에 강력하게 그치라고,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하와이와 LA에서 몇년 동안 가라데를 연습했고 오늘날도 아침마다 가타를 복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공연도 한다! 약 십년전에 헝가리로 이사왔을 때부터 150차례 이상의 음악회를 했다.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다.

여기는 우리 삶을 비춰주는 몇 장의 사진이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MIA AND TOMMY WITH THEIR GROUP PERFORMING AT THE KOREAN
CULTURAL FESTIVAL
BUDAPEST 2017



Mia Kim, also known as Min-ja, a member of the Kim Sisters, is shown with her husband Tommy Vig after their Jewish wedding ceremony in Temple Beth Shalom in Las Vegas in 1967.

TIME MAGAZINE 1967 MARCH 21



MIA AND TOMMY IN SEOUL 2017



MIA 2018



MIA 1963



MIA WITH DEAN MARTIN



MIA PERFORMS AT MÜPA IN BUDAPEST 2017



MIA WITH THE MIMI SISTERS AND THE BARBERETTES IN SEOUL 2016



LEE NAN YOUNG, MIA'S ADOPTIVE MOTHER -
MIA WAS HER FAVORITE DAUGHTER



MIA APPEARING ON AMERICAN TV WITH
LEE NAN YOUNG



THE VIGS IN 2018, BUDAPEST



MIA AND TOMMY WITH MOVIE PRODUCER DAEHYUN KIM
ON THE RED CARPET AT THE KOREAN MUSIC FESTIVAL 2017



MIA AND TOMMY DURING TV-INTERVIEW AFTER
PERFORMING AT THE KOREAN ART FESTIVAL
AT THE BÁLNA IN BUDAPEST 2017



MIA PERFORMING ON TV IN BUDAPEST 2016



MIA WITH ED SULLIVAN



MIA AND TOMMY IN KOREA 2017



MIA AND TOMMY WITH PRODUCER DAEHYUN KIM AND THE BARBERETTES IN SEOUL 2016



MIA AND TOMMY AT THE CULTURAL CENTER IN SEOUL 2015



MIA AND TOMMY WITH FRIENDS IN KOREA 2017



HERE TOO



ROGER VIG 3 ½ YEARS OLD PLAYING THE DRUMS
IN HOLLYWOOD WITH HIS FATHER'S BIG BAND



THE KIM SISTERS' MOST SUCCESSFUL CLOSING MARIMBA NUMBER
ARRANGED BY TOMMY VIG

다음 몇 페이지는 가짜 작가의 사라 게르데스가 쓴 담백한 명예 훼손의 책에서 가져온 사진 복사들이다. 이 허언증 환자 같은 사람은 수에게서 \$25000를 받아서 김 시스터즈에 대해서 수백개의 위조가 담겨 있는 거짓인 전기를 썼고 전세계로 출판했다. 그 이야기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들에 의해 이미 돌아가신 정직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데다가 미아와 토미 비그를 헐뜯어 버렸다. 미아와 토미 비그는 이제 80살이지만 매우 활기차는데!

SUE KIM



OF THE KIM SISTERS
THE AUTHORIZED BIOGRAPHY

SARAH GERDES

PREFACE

When Sook Ja Kim was four years old, sitting by the window on the third floor of her parent's thirteen-room mansion outside Seoul, she had no idea she would live through the capture and execution of one parent, the kidnapping and suicide of another.^{*} She couldn't have dreamed that poverty and near starvation would drive her and her siblings to perform for food, and that this talent would catapult her out of obscurity in Korea to the stage lights of Vegas by the age of nineteen. On that day, in the summer of 1943, she couldn't have foreseen the abuse and death of her closest sister nor the addiction and rehabilitation of brothers and relatives. Most of all, she had no concept of the Italian boy in New York, playing baseball on a dirty field in the Bronx, who she would meet, marry, and who would become the longest running casino boss in Las Vegas history. Together, they would shine as the most glamorous couple under the bright lights of the desert city for four decades and raise children and grandchildren, even as his occupation and her family threatened to tear it all apart. At that moment on that day, Sook Ja only knew stars existed in the sky, not on the stages around the world that was to be her destiny. For a few more hours, Sook Ja still had the pure, trusting, unconditional love of a sheltered child. They would be her last.

*** PUBLISHER GERDES
FINALLY REVEALED
THAT LEE NAN YOUNG
COMMITTED SUICIDE!**

SARAH GERDES

family in under her care. It was during the train ride to Pusan that Ran had an idea, one that involved three singing girls, who she could brand as "sisters." She'd seen how easily her brother's daughter Min-Ja Lee (pronounced Mee-ya), complimented her own daughter's personalities. She was quiet, easy going and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performing.

When Ran and her large group entered the old locomotive, she found all the seats were taken, so Ran and her kids sat on the floor, piling on one another's laps or standing to make room so that they could stay together. The occupants of the tight quarters tried not to touch one another. For hours, the train stood still. It didn't take long for fleas and lice to leave the entire group scratching their heads and other body parts. Ai-Ja and the others children ruthlessly dug out the fleas on their arms, and felt the creeping and itching crawling of the lice burrow their way into their scalps. The time gave her a chance to consider the merits of her idea and convince her it was the only way to sustain her extended family.

Once the train began moving, Ran gathered her children around her. She was forming a new singing group, called The Kim Sisters. The group would include Sook Ja, Ai-Ja and her brother's daughter, Min Ja. Elder sister Young Ja was relieved, since she had always hated performing to the crowds on the street, much preferring to dance or better yet, babysit the other children. Sook Ja welcomed the news because she had firsthand knowledge of the American's leftovers and the warmth of a tent. She enthusiastically told Ai-Ja about the Coca Cola, the chocolate and the food. Ai-Ja was immediately excited. Min Ja was no less eager, although she expressed it differently. Her sweet personality was solicitous and encouraging, not overly flirtatious like Ai-Ja nor as commanding as Sook Ja. Since joining the Kim family, she'd retreated in to a quiet role, uncomfortable with taking the beds or food that rightfully belonged to her cousins. By performing, she knew she'd be contributing to the family, not taking away. Ran's brother gave her his full blessing: it was one less mouth to feed and person to worry about.*

*** A BIG LIE,
INVENTED BY
PUBLISHER GERDES**

As the train clattered and clanged its way south, passengers watched Ran teach Min Ja and Ai-Ja the American words to *Old Buttermilk Sky* and *Cookies and Cake* with Sook Ja providing helpful tips for memorizing the words. Ran asked one of her dancers, Mrs. Kang, to teach all three girls how to tap dance.

The train was full to capacity, with some people sitting on laps to rest their legs. The dusty wooden floors were covered with tired bodies. Mrs. Kang's requests for others to give up their seats were ignored.

Once again, Ran's fame came to her assistance. Only Ran could have influenced a tired, beaten people to sacrifice their floor seating, but for Ran Young

THE SUE KIM STORY

In October of 1993, Sue gave her last performance in Harrah's Casino. She took the holiday season off, fully expecting her contract to be renewed with Rocky in January as promised. When he unexpectedly died, it left her without a signed contract. The hotel was sold to new owners, who weren't interested in renewing her contract, news that Sue and John took in stride. Sue was already receiving offers from other venues, and as she told John, she was glad of it. "Thirty-five years isn't enough."

Then misfortune struck two times over. The first came in the form of a demand letter from Mia. The former group member had continued to receive payments every week for years, even though she hadn't performed. Sue generosity had long outstripped Mia's participation, and as she affirmed to John, not once had she regretted her decision. It had been the right thing to do. But now, even Sue's unending reservoir of kindness went dry when she read the note from her former adopted sister.

She immediately heeded John's advice to pay her off and be done with the woman. They hired Norm Kershman, a former union lawyer, to negotiate a settlement, one that included a one-time lump sum of \$52,500, a figure Sue thought a fortune. With the money was the agreement and rights for Sue to continue using the Kim Sisters name, and Mia's inability to reference the Kim Sisters in her own solo pursuits, should she continue on stage. Sue and John had no other options than to attain a second mortgage on their home, a fact neither disclosed in the paperwork. Once the final documentation was signed, Sue never heard from Mia again. All the years of work, family and friendship gone once she had a check.*

***NOT A WORD OF THIS STORY IS TRUE!**

Ever the optimist, Sue believed she'd make the money back in a few months. She was ready to sign a new contract when misfortune struck again. As she drove to an appointment, a driver ran a red light, totaling Sue's car. When she woke in the hospital, she learned four vertebrae in her back had been shattered. The doctor told her she would have to give up performing.

"Absolutely not," she replied, as she felt the neck-brace affixed to her body. Once the bones healed, she'd be back, better than ever.

"No, you don't understand," he said sympathetically, glancing at John. "You'll never walk again."

Sue refused to believe the doctor's prediction. For months, she laid in the hospital bed, pushing herself to move her limbs, denying herself pain medication. John was by her side, day and night, until Sue feared for his job.